



Art

아트인컬처
March 2014

Special/
나의 아트, 나의 아시아
미술인 14인의 체험 에세이

Critic/
아시아를 넘어서는 아시아 미술

Artist/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쿠도 테츠미

ART FIELD

WELCOME

SPOTLIGHT

PUBLIC

PEOPLE

ABROAD

MOVIE

STATEMENT

BOOK

ART SPACE

이윤호의 B-CUT

VIEWABLE

ART MATRIX

ART IN SNS

줄리안 오피, 거리를 걷는 사람들 - 서울편 / 박찬경 <만신>,
굿문화와 무속신앙의 재조명 / 최동열 <Timeline>, 예술의
'혼'을 찾아 떠나는 여정 / 천경우, 공공미술로서의 사진
아트페어도쿄2014 / 2014 화랑미술제 / 네오산수 / Draw
떠나거나, 혹은 남거나 / 조해영: cinnabar green deep
KOTRA오픈갤러리,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랑데부
안드레아스 게펠러: Supervisions & Beyond / 데일리
리플렉션 / 이원일의 창조적 역설 / 빈센트 반 고흐 / 6-8
장-마리 해슬리: The Color of Life / 달의 변주곡
한경우: I MIND / 최소한의 최대한 / 판화가 대화하는 법
최광호: 해안선, 숨의 풍경 / 장혜홍: 화.양.연.화 / 춤의 귀환
시와 미술: 봄이 오는 소리 / 이완: 우리에게, 그리고 저들에게
The Great American Icons / 곽남신: 깍데기 / 페스티벌봄
장민승: 가구팔자 / 정수진: 다차원 존재의 출현 /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현대공간과 설치미술 / 김인배 / 미술로
보는 현대사, 한국의 샤먼/리얼리즘 / CAA 연례 학회 / 쉬젠:
메이드인 컴퍼니 프로덕션

거리를 걷는 사람들 - 서울편

줄리안 오피展 2. 13~3. 23 국제갤러리

국내 두 번째 개인전을 맞아 한국에 찾아온 줄리안 오피를 만났다. 2010년 서울스퀘어 건물 외벽의 대형 미디어캔버스에 상영한 LED 애니메이션 〈Walking People〉로 서울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그가 이번에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최신작을 다수 선보였다. 한국의 사진가가 사당동과 신사동 일대의 행인을 찍어 보낸 사진 3000여 컷 중에서 특정한 인물이나 장면을 비닐페인팅으로 제작했다. “런던에 비해 서울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그는 각양각색의 옷차림이 돋보이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붉은 선과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했다. 그 밖에도 이번 전시에는 바쁘게 흘러가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대인의 일상을 포착한 작품이 출품됐다. 런던의 보행자를 담은 LED 애니메이션, 도시 한 가운데 멈춰서 두리번거리는 관광객을 그린 초상화 연작, 사람의 머리를 확대한 대형 조각을 새롭게 공개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이 조각 작품은 작가의 이웃인 실제 인물들의 두상을 3D 스캔해 레진으로 만들었다. 오피 특유의 미니멀한 형태와 인공적인 채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움직이는 인물의 역동성, 조각에서는 인체의 물리적 무게감을 각각 강조했다. LED, 비닐 등 첨단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오피는 의외로 “고대 로마 모자이크 등 과거의 미술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고백했다. 이번 신작 역시 로마시대 두상 조각과 18세기의 전신 초상화 전통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오피는 골드스미스 컬리지 재학 시절 패트릭 콜필드와 마이클 크레이그-마틴을 사사하며 그들의 팝아트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에 건물, 자동차 등 도시 생활의 오브제를 재해석한 입체 작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물과 풍경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페인팅 및 애니메이션으로 독특한 작업세계를 구축했다. 미술계 뿐 아니라 광고 및 대중문화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음반 자켓, 버스 광고, 공항 환승통로 사인 그래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 채연 기자



줄리안 오피(Julian Opie) / 1958년 런던 출생. 1982년 골드스미스 컬리지 졸업. 알란크리스티갤러리(2013), 영국국립초상화갤러리(2011), K21(2003) 등에서 개인전 개최. 테이트모던, 뉴욕현대미술관, 도쿄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주요 작품 소장. 한국에서는 국제갤러리 개인전 개최(2009) 및 일주&선화갤러리에서 패트릭 콜필드와 2인전(2012)을 가졌다.

국제갤러리 K3 설치 전경 2014
이전 페이지 · 줄리안 오피 〈Julian〉 2012

